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2110-4897), 양광석 팀장(4900)

전력수급, 전 국민의 동참으로 1차 위기 극복
- 내일·모레 이틀 잘 넘겨야 -

□ 8.12(월), 매우 심각한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예상되었으나 가정, 상가, 산업체, 공공기관 등 온 국민의 절전노력으로 1차적인 큰 고비를 넘겼음

○ 예비력 : (대책전) -267만kW, (대책후) 440만kW

* 수급대책 (707만kW) : ▲공급대책 : 민간발전 39만kW ▲수요대책 : 절전규제 323만kW, 휴가분산 152만kW, 주간예고 91만kW, 수요입찰 10만kW, 지능형DR 9만kW, 선택형피크요금제 10만kW, 전압조정 73만kW

○ 최대수요(15시) : (대책전) 7,971만kW, (대책후) 7,303만kW

○ 공급 : (대책전) 7,704만kW, (대책후) 7,743만kW

* 8.11(일) 오후 10:34 당진3호기(53만kW) 터빈 블레이드 파손으로 정지 (9월 이후 재가동 전망)
* 8.12(월) 오전 7:08 서천화력(20만kW) 해수순환펌프 고장으로 정지후 8:04 일부 재가동

○ 비상단계 발령 : 준비 (오전 10:57)

□ 주요 부문별 절전 노력

○ (가정) 국가적인 전력난 극복에 아파트 등 일반국민들도 적극 참여

* 수도권 아파트 21,000대 모니터로 절전방송 실시(1분 2~3회)
*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: 금요일 대비 피크시간대 114kW 감축 (5.4%)
* 월곡동 두산위브 : 금요일 대비 피크시간대 68kW 감축 (4.2%)

○ (상가) 금일 오후 피크시간대 대표적인 명동상권 단속 결과, 대체적으로 절전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

* 문열고 냉방 단속은 경고장 발부가 없었고, 냉방 온도제한 단속에서는 한곳에만 경고장 발부

○ (산업체) 산업부는 100여개 전기다소비 주요기업의 CEO 등에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

-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절전규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업조정, 휴가분산, 비상발전기 가동 등으로 비상절전에 적극 참여

* 포스코 : 광양제철소 소요전력을 전량 자체발전으로 충당, 전사적으로 평상시 수전 전기의 40%만 사용토록 조치
* 현대제철 : 13개 전기로 중 11개 가동을 잠정 중단하는 등 조업일정 조정
* 삼성전자 : 일부 생산설비 가동 중지, 사무실 조명 및 공조기 90% 오프 등
* LS전선 : 전력피크시간대 조업 최소화 조치 시행
* 대우조선해양 : 월·화·수 3일간 완공된 선박 2척의 발전기 가동(4천KW), 3일간 도장업무를 야간으로 변경

○ (공공기관) 월·화·수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내조명 소등, 냉방기 가동 중단, 불요불급한 전원 차단, 승강기 사용 최소화 등 절전조치 긴급시행

○ (기타) 한전 및 전력 그룹사는 필수 요원을 제외한 사업소 전 직원을 현장에 급파, 현장 절전 활동을 전개

- 전력기술인협회는 전국의 전기 안전관리자 47,477명에 SMS를 발송, 소관 수용가 절전유도 활동 전개

□ 내일, 모레까지도 수급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 국민이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절전에 지속 동참 필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양광석 팀장(☎ 2110-49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